

# Dave Mathewson 박사, 신약문학,

## 강의 24, 빌레몬서 및 데살로니가전서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신약역사와 문학 강의 24번 빌레몬서와 데살로니가전서의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좋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당신의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과 그 부르심을 전달하고 구현하는 문서를 더 깊이 살펴보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이 바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신약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동안 당신의 임재와 능력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마쳤습니다. 두 권의 책은 신약성경 본문의 정경적인 순서에서 벗어나 분명한 이유로 함께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빌레몬서가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신약성서의 몇몇 부분에서 제기됨)는 빌레몬서의 주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직접 나서서 노예 제도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대신, 예를 들어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은 노예 제도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는 항상 그것이 어떻게 규제되어야 하는지, 노예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주인이 어떻게 규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그렇게 합니다. 노예에게 응답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바로 나오지 않고 노예제도를 정죄하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거나 주인에게 노예를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종종 '바울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왜 그는 직접 나서서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노예 제도를 규제하기로 선택했습니까? 왜 그는 그냥 나와서 빌레몬과 다른 모든 노예

소유자, 특히 그리스도인 노예 소유자에게 그들의 노예를 풀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신에 저는 그 질문에 대해 답하거나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매개변수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로마 세계의 노예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게시물과 달리 적어도 미국, 북미 환경에서 노예 제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일반적으로 남북 전쟁 이후이며 노예 제도를 인종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세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예제도는 인종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종이나 그런 것 때문에 노예가 된 것이 아닙니다. 대개는 정복당한 나라나 영토에 속해 있어서 정복한 나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노예가 되거나, 경제적 수단을 위해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했기 때문에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인종적 동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점은 적어도 1세기에는 노예 제도가 광산에서 봉사하기 위해 징집되어 로마의 광산에서 일하는 노예들과 같이 매우 잔인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예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 매우 잔인하게 대우받았지만, 반면에 부유한 주인을 위해 일한 일부 노예들은 매우 좋은 대우를 받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노예가 되기 전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 특히 그들이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인을 위해 일하고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은 음식과 더 나은 숙소를 가질 수도 있고 종종 자신의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 상황도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리스-로마 세계의 노예 제도와 관련하여 세 번째는 노예 제도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인해 그것이 도처에 있었다는 사실은 마치 안정성,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의 안정성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는 그것에 의존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독교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쓸데없고 아마도 기독교에 더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바울이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데 있어 선례가 없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다른 유대 저서 등을 보면, 바울은 로마제국의 노예제도의 성격과 그 성격이 너무나 뿌리깊고 널리 퍼져 있던 문제, 즉 노예제도 문제를 다루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독보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렇게 하려고 했고 기독교인들이 노예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것이 또 다시 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 기독교의 존재를 위협했을 수도 있다고 적어도 일부는 추측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은 그리스-로마 세계의 노예 제도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경험했던 것과 매우 달랐다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가 다른 문화나 국가 출신인 여러분은 삶의 일부. 그러나 미국에서 우리는 종종 노예제도를 남북전쟁 이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이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세 가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예 제도는 인종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지 않았습니. 자신과 무관한, 일반적으로 출신 배경이나 국적과 무관한 다양한 수단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노예제도가 항상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노예로서의 지위가 있다는 사실, 노예라면 노예가 되기 전보다 더 나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것이 그리스-로마 문화에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아마도 바울이 그것을 훼손하고 반대하는 것이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거나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아마도 바울은 다른 전략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바로 그 복음을 그렇게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빌레몬서에서 그의 주장의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동등한 몫을 선포하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동등한 상속 또는 복음에 대한 동등한 참여.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나 여자가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 없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바울은 아마도 복음 전파

자체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국에는 노예 제도를 무너뜨리고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영국 대학에서 가르쳤던 전직 신약학자 FF 브루스(FF Bruce)였다.

FF 브루스(Bruce)는 바울이 복음을 통해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강조하고 사회적 구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등을 강조한다는 것을 확신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브루스는 그 복음이 노예 제도가 결국 시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노예 제도를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바울이 특정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아마도 내가 한 이 많은 논평은 적어도 바울이 노예 제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시작일 것입니다. 네.

만약 그에게 완전한 자유가 있었다면? 즉, 만약 그가 아무 것도 없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다면... 네, 우리 사회에서는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나는 아마도 그가 이와 관련하여 언론의 자유가 더 많았고 정치적으로 얽매이지 않았던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 오늘처럼 그것에 대해 더 노골적으로 반대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시 말하지만, 그가 말하는 방식... 나는 그가 빌레몬서에서 하고 있는 일과 특히 갈라디아서와 같은 책에서 그가 강조하는 바를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종이도 자유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약성서 전반에 걸쳐 사회 계층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하지 않으며 교회 내 분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강조한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그가 반대했던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그가 빌레몬과 같은 책에서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나는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며, 나는 노예 제도에 관한 바울의 생각에 대해 전혀 전문가가 아니지만 아마도 그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자, 이제 초대교회 메일의 또 다른 부분을 열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편함에 손을 뻗어 편지를 꺼낼 것입니다.

또는 실제로 데살로니가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한 교회로 보낸 두 통의 편지입니다. 나는 그리스 출신의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사람은 아니요, 테살로니키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나는 그것을 데살로니카라고 부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발음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개의 편지, 즉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왜 두 글자입니까? 다시 우리는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살펴보고 그 두 편지가 실제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적어도 네 권 이상 알고 있는데, 그 중 두 통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후서라고 부르는 편지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두 글자가 필요한지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까? 우선, 첫 번째 글자입니다. 바울은 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라고 부르는 이 편지를 썼습니까? 보시다시피 이전에 이와 유사한 지도를 본 적이 있지만 이것은 지도이고 모든 종류의 변형을 찾을 수 있지만 멋지고 다채롭고 깔끔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현대의 그리스와 현대의 터키 또는 고대 소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색깔의 선들은 단순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주요 선교 여행을 살펴봤는데, 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빨간색 선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바울의 로마 여행을 보여주거나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 데살로니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바울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요 배경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단지 몇 달을 보낸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는 실제로 다소 적대적인 상황에서 떠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그의 환영은 모든 사람에게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몇 달 동안만 머물렀습니다. 고대 세계를 기억한다면 그리스는 북쪽의 마케도니아와 남쪽의 아가야라는 두 제국으로 나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현대 그리스 제국의 북부 지역인 마케도니아 북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코린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가 남쪽 아가야에 있다고 조금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는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교 여행 중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몇 달 후에 바울은 실제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가 기록된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몇 가지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분명히 고린도의 문제는 좀 더 심각했고 그 수도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이 앉아서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여기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곳은 현대의 데살로니카 도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 위층에 머물렀습니다. 1세기 데살로니가의 고대 유적 중 일부.

다른 그림. 흥미롭게도 고대 도시에서 행해진 일부 고고학적 작업과 그 바로 뒤에 있는 현대 건축물 사이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알고보니 이걸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더군요.

그들은 나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고대 도시나 유적과 건설된 현대 건축물 사이에는 흥미로운 대조가 있습니다. 편지는 실제로 매우 간단하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세 장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 및 문제의 본질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적어도 그의 다른 편지들과 비교해 보면 그 편지들은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고 바울을 그렇게 화나게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세 장에서 바울은 기본적으로 독자들의 복음이 발전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합니다.

일부 편지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바울은 기본적으로 독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독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때 바라건대 독자들이 이를 더 잘 받아들이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세 장은 하나의 긴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 대부분은 감사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독자들이 발전한 것에 대해 바울이 독자들을 칭찬하면서 감사는 처음 세 장 전체에 걸쳐 확장됩니다. 그러나 다시 4장과 5장에서는 바울은 그들에 대한 추가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언급한 두 가지 문제 중 하나는 성적 순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로마 도시에서는 성적 부도덕이나 방종한 도덕이 당시의 표준이 되었을 것이며, 종종 그리스-로마 신들 사이의 특정 종교적 관찰 및 사원에서의 특정 예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일반적으로는 바울의 사역 하에 기독교로 개종한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 일부가 여전히 공식적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고린도인들에게 성적 순결에 관해 가르치고 있으며, 이를 성화와 거룩함의 범주에 넣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 따르면 거룩함과 성화에는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포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루는 또 다른 문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것은 아직은 아닐 것이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종말론적인 긴장, 즉 미래가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의 왕국 가르침에서 왕국은 이미 존재했지만 아직 충만하게 도래하지 않았습니니다.

이제 바울은 아직은 아니다, 즉 구원과 심판을 가져오기 위해 역사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것을 거의 예상하면서 읽을 때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각 장의 끝에는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미래 오심에 대한 핵심 언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이르면 바울은 마침내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나는 장례식을 제외하고는 이 본문이 설교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 문자를 들어본 곳이 바로 이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4장 13절부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를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 문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게 뭐예요?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있는 자도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외침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18절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포위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경험한 일로 인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이 땅으로의 재림을 다루며 공중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 모든 사람을 모으는 이런 종류의 긴 부분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며 왜 바울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까? 하지만 우선,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가 종말론과 종말에 관한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에 어떻게 들어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취미 중 하나는 교회에 갈 때마다 교회의 교리적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괴물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교회에서 교리적인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주로 나는 그들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얻기를 좋아하는지, 어떤 종류의 것들을 제외하는지, 어떤 종류의 것들을 포함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교리적 진술은 단순히 성경이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이 교회가 믿는 것에 대한 독특한 진술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련된 신앙 체계에 따라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식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미래에 대해 말하는 내용에 관심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끝내실 것입니까?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 많은 세부 사항이 들어맞는 다소 정교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일종의 세부적인 시간표나 적어도 일반적인 시간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제 흥미롭게도 초기 신조로 돌아가서 가끔 사도신경을 인용하거나 초기 신조인 니케아 신조를 읽고 다시 역사를 통해 현대의 교리적 진술을 읽으면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역사를 종결짓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 것이라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매우 일반적인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유대 종말론에서 구약으로 돌아가서 신약 시대까지 그리고 신약 시대에 기록된 일부 유대 문헌으로 돌아가서 유대 종말론을 특징짓는 한 가지 방법은 역사의 종말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백성을 변호하고, 만물을 바로잡고, 땅을 새롭게 하고, 그의 왕국을 회복하고 확립하기 위해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일의 일부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종말론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현 시대, 즉 악과 죄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주관하고 악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날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고 다가올 시대, 즉 새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것이 뉴에이지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말하는 새 시대, 예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아직 그 일부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시작하실 새 창조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시고 땅을 심판하실 때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충실한 백성을 옹호하고 상을 주십니다.

이제 그 때까지 이어지는 많은 유대 문헌에서는 흔히 종말론적 재난 또는 산고라고 불리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즉, 그들은 종종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새 창조를 세우며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극심한 고통의 기간을 비교했습니다. 미래의 그 기간은 이러한 종말론적 재난의 기간이 선행될 것이며 일부는 이를 산고라고 불렀습니다.

여자가 진통이 심하여 해산할 것을 아는 것과 같이, 해산의 서막으로 유대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이 화와 환난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새 창조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문의 서곡이자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것이 데살로니가전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배경을 설정합니다.

문제는 데살로니가전서와 이 가르침,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일으킴을 받는다는 개념과 그를 만나기 위해 들러 올려져 영원히 함께 있고 구름 속에서 그를 만난다는 개념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왕국을 세우시고 새 창조를 시작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충실하게 남아 있는 자들을 변호하고 보상하실 때가 아직 아닌가? 데살로니가전서는 어디에 속합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다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간은 종말론적 재난 또는 환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 살아 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지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로잡혀졌다는 문구는 라틴어로 번역되었으며, 성경의 라틴어 번역본에서는 휴거라는 단어가 유래된 라틴어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많은 교회 교리문에서 성도들의 휴거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끌어 올려지는 때입니다. 문제는 이 계획에서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가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끌어 올려지는 일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리고 문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종말론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주된 관심은 단지 18절에서 그가 다루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말로 서로 위로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종말론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환난이라는 언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재난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차트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종말론적 재난, 산고, 고통, 환난 및 고난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휴거라고 부르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이러한 메시아적 또는 종말론적 재난이나 환난, 이러한 산고와

관련하여 언제 발생하는가입니다. 교회 교리문을 읽으면 아마도 이 두 가지 선언문을 많이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문은 자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환난 전이라고 알려진 견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끌어 올려지는 것은 우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 종말론적 재난 이전이나 그 이전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다른 저자들은 큰 환난을 부르며, 유대 문헌에서는 그것을 종말론적 재난 또는 해산의 진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전은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우리를 따라잡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를 따라잡으십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실제로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단순하고 교회사에서 지배적인 견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또 다른 견해는 더 이상 주장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버전이 있지만 여러분은 이 버전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지 파 휴거입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일종의 중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말론적 재난의 한가운데에 있는 어느 때입니다. 앞의 슬라이드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오는 이 환난의 시기는 실제로 상황이 악화되어 진행되기 전에 교회가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8절에서 우리가 주님을 공중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 그는 이러한 종말론적 재난의 한 가운데 있는 때, 즉 환난과 고통의 시기를 언급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후 휴거라고 알려진 휴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끌려가는 것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소위 휴거는 이 화들 또는 환난의 기간 이후 또는 그 후에 옵니다. 그러므로 이번 휴거, 이른바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다른 두 가지 견해는 휴거, 즉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포함된 휴거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의 왕국과 새 창조를 세우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그분과 함께 있게 하실 때, 그때 그분은 역사를 끝내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종말론적인 재난, 이러한 산고, 이러한 환난을 경험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때,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로 모아 온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신실한 백성에게 상을 주시며, 영원히 지속될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 용어를 듣는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말할 때 가장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용어를 듣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끌려가는 것에 대한 언급은 이러한 화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이 환난의 계획에 적합합니다. 왕국을 세우고 그의 새 창조물을 세우려고 하였느냐? 그래 맞아. 이것은 제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추측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특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상황이 저절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런 다음 우리는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그분과 함께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 이제 밤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자세, 즉 pre- trib , mid- trib , post-trib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언어 중 일부이고 역사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는 한, 교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항상 다양성을 용인해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문제는 종종 교회와 다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분열과 분리를 일으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예수님이 분명히 역사 속에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축하해야 합니다. 그의 왕국을 세우고 역사를 마무리하십시오. 교회는 늘 그렇게 믿어 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도신경을 읽으십시오.

돌아가서 예수께서 실제로 심판하러 오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보상하기 위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언급하는 초기 신조 중 일부를 읽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둘러싼 모든 세부 사항은 파악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여 영적인지 아닌지, 상식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더 나쁘게 분류하는 데 너무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러한 다양한 것을 용인해 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개정된 것 같지만 몇 년 전에 출판된 The Tribulation Pre-, Mid- 또는 Post-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직위에 대해 세 사람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같은 학교, 정확히 같은 신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호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직면할 수도 있고 직면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 중 하나이지만, 확실히 궁극적으로 공정한 검사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종말론을 이해함에 있어서 무엇을 확신할 수 있고 무엇에 동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괜찮은.

당신은 아마도 내가 어느 것에 속하는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몇 가지.

좋아, 난 마지막 단계야.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저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첫째, 이와 관련하여 문제는 바로 다음 구절인 5장 1절을 듣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아무 것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자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전화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전화 대화의 한쪽 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Paul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 이미 말했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연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4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이미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것에 대해 더 자세히 당신에게 편지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그가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단지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약간 가난합니다. 우리는 매우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바울의 은유 중 하나를 사용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을 때 우리는 유리나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문제의 일부는 바울이 이미 그들에게 말했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연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15절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예언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마도 자신의 영을 통해 바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것이며, 바울은 이를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가 예언의 은사에 대해 논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려는 내용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옵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울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또 다른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말은, 그것은 그가 4장에서 말한 것에 대해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계시, 신성한 계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4장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성경의 과거 부분, 즉 구약성경이나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부분, 또는 두 가지를 조합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노트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과 마태복음 24장 사이의 유사점이 있는 작은 도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 즉 재림에 대한 가르침 중 가장 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기본적으로 그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록된 기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이 구두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울이 15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4장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태복음 24장과 24장과 같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5.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4장과 5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사이에 유사점이 너무 많아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마치 데살로니가전서를 빨리 읽지 못한 것처럼 데살로니가후서를 아주 아주 빨리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즉, 왜 그는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야 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가 이것을 가르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전에 가르쳤던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는 이것을 연습하고 그들에게 상기시켜야 합니까? 글썄요, 아마도 이런 시나리오일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가르치는 것이 중요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오심과 메시아의 재난에 대해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등등, 그리고 주님의 날인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에 있는 주님의 날이라는 문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때와 지금 그가 편지를 쓰는 때 사이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회중 가운데 여러 사람이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자신들이 손해를 보게 될지, 아니면 불이익을 받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고있니, 폴? 다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사도 행전 17장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떠났고 아마도 두어 명 또는 몇 명의 교인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놓치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행사를 놓치게 될까요? 아니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까요? 그러자 폴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남은 우리도 그들을 공중에서 영접하리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그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들에 온전히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를 내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사건들에 완전히 참여할 것입니다. 왜 그들이 놓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 그는 많이 말하지 않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런 종류의 설명이 그럴듯해 보인다.

좋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가지 문제, 즉 성적 부도덕에 관해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문제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기회를 놓치게 될지 궁금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아니요, 그들은 온전히 참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다음

우편물인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데살로니가 첫째와 둘째가 이 순서대로 기록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편지들은 일반적으로 쓰여진 순서가 아니라 길이 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먼저 기록할 수도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또 다른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분명히 데살로니가인들은 이것이 전체 문제도 아니고 전체 문제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바울의 가르침에 과잉 반응하고 약간 너무 잘 반응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우리가 그와 함께 모일 것을 들으라. 그것은 4장에 나오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끌어 올려지는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주의 강림하심과 모임에 관하여는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편지로나 우리에게서 받은 것 같이 급히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날이 이미 다가왔습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인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첫째서를 쓴 후에, 이제 첫째 데살로니가인들은 정반대의 극단에 반응하여 그들이 이미 주님의 날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하고, 아직은 아닌 재림을 맞이하고 역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누군가가 그들에게 마치 바울이 쓴 것처럼 그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과잉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이 우리 살아있는 자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아 있다고 말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과잉 반응을 보였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말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주의 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이든 거기에 도달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요 문제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신들이 이미 주님의 날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기본적으로 끝, 때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반드시 문자 그대로의 하루, 즉 24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의 왕국과 새 창조를 세우실 때를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분은 악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분의 백성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미 거기에 이르렀고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에 바울의 대답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는 기본적으로 주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여, 당신은 아직 주님의 날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게 보낸 편지의 요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날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주의 날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핵심 부분이 2:2-11 장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열거한 일들, 그가 말하는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게 되기 전에는 주의 날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여, 당신은 이미 종말에 이르렀고, 역사를 종식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도록 속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 생각하도록 속지 마십시오. 바울은 오늘 돌아와서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가장 최근에 예언된 것은 5월 1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해요. 결승전에

가셔야 할 거예요. 미안해요.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결승전 중 일부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주님의 날에 있고 역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니, 아니, 일어나지 않은 특정한 일들이 있지만 문제는 바울이 나열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 가지를 열거합니다.

그는 세 가지를 열거합니다. 첫 번째는 반란입니다. 아직 패역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불법의 사람이 아직 오지 않았고, 마땅히 치워야 할 봉쇄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당신에게 도움이 되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반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은, 여기서의 개념은 일종의 배도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날 것인가? 그러면 불법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적그리스도의 인물과 같은 특정한 인물로 식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특정한 인물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일종의 정신이나 반항적인 태도를 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억제기는 어떻습니까? 온갖 종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억제하는 자가 악을 막고 있으니 억제하는 자가 제거되어야만 악이 그 길로 나아가고 끝이 오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구속자가 도대체 뭐죠? 어떤 사람들은 제지자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성령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라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 복음 전파라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1세기의 로마 제국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온갖 종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시 한 번 문제는 내가 이 일에 대해 말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이미 말하였으므로 더 말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아마도 데살로니가인들과 바울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어둠 속에 남겨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최소한 중요한 점은 바울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종말의 직전. 당신이 이미 주님의 날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기본적으로 데살로니가후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합치면 데살로니가전서가 어떻게 ...에 대한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역사와 문학 강의 24번 빌레몬서와 데살로니가전서의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